

자립(自立), 정체성을 탐구하다.

김영기, 김창열, 박서보, 방혜자, 변시지, 서세옥, 성재후, 송수남, 송영방, 오승윤, 이대원, 이숙자, 이월중, 정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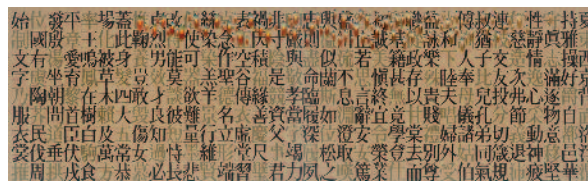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는 확장되고, 사회는 대립과 충돌로 점철됐다. 군사정부는 맹목적으로 서구 중심의 문화를 추종하던 세태를 반성하고, 국학과 인문학 등의 연구를 지원했다. 당시 우리 미술은 서양미술의 영향으로 고유성이 떨어진다라는 의식을 떨쳐내려고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았다. 회화에 대한 의식의 전환으로 행위의 반복과 재료의 물성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자연 풍경에서 얻어지는 고유의 색으로 한국적 서정성을 표현했다. 전통 미술은 1980년대 들어 수묵 운동으로 나아가 한국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새로운 예술 형식을 독창적으로 완성했다.



이숙자 李淑子
청매(靑麥), 1978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숙자



이대원 李大源
농원(農園), 1980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대원



김창열 金昌烈 회귀(回歸), 2011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김창열

2024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특별기획

찬란함에 물들다 - 한국근현대미술전

〈찬란함에 물들다-한국근현대미술전〉은 고려대학교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191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회이다. 시대와 함께 호흡해 온 한국의 주요 구상미술과 추상미술 작가 56명의 작품 63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근현대미술 작가들은 일제강점기, 6. 25전쟁, 군사정부, 민주화, 세계화 등의 굵직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예술성과 혼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세상에 공감하고 때로는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메시지를 던져온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제작 시기, 주제, 양식 등에 따라 '계승(繼承)', '수용(受容)', '혁신(革新)', '자립(自立)' 등 네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조망한다.

작품 속 근현대 역사와 미술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참여 작가

고희동, 권옥연, 권진규, 김경승, 김기창, 김영기, 김은호, 김인승, 김창열, 김환기, 남 관, 노수현, 도상봉, 류경채, 문학진, 박래현, 박상옥, 박서보, 박수근, 박영선, 방혜자, 배정례, 변시지, 변영원, 변종하, 서세옥, 성재후, 손응성, 송수남, 송영방, 송영수, 오승윤, 오지호, 유강열, 윤재우, 이대원, 이마동, 이상범, 이성자, 이숙자, 이월중, 이응노, 이종무, 이종우, 이종섭, 임직순, 장욱진, 정탁영, 조병덕, 채용신, 천경자, 최덕휴, 최쌍중, 최영림, 허 건, 허백련

도움 주신 분

고려대학교 박물관, 박수근연구소, 장욱진미술문화재단,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전시에 협조해 주신 작가 유가족 및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금정문화회관

462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7 (구서동)
T.051.519.5657 <https://art.geumjeong.go.kr>

2024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특별기획

한국근현대미술전



찬란함에 물들다

2024. 8. 6. 화 - 10. 20. 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10:00 - 18:00, 매주 월요일·추석연휴 휴관

주최·주관 : 금정문화회관

공동주관 : CoA-SPACE (사)코아스페이스

소장처 : 고려대학교 박물관 KOREA UNIVERSITY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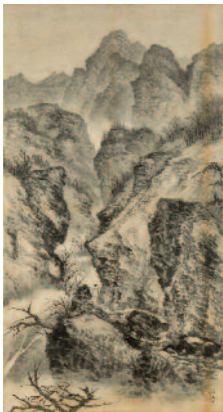
계승(繼承), 전통을 이어가다

고희동, 김기창, 김은호, 노수현, 이상범, 채용신, 허건, 허백련

조선말 한국미술은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려는 개화파 간의 혼돈 속에서 20세기를 맞이했다. 당시 화가는 보통 중인층의 신분에 속했고, 궁에서 일하거나, 양반의 예술적 욕구를 채우는 역할을 했다. 정치·사회적 변화는 전통 화단에도 영향을 미쳐 자연을 보는 인식, 시각적 표현 방식에서 근세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문호가 열리고 일본 화풍이 쉽게 유입되면서 수묵과 채색의 전통 서화가 변화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남화풍의 표현이 풍경화에 등장하였고, 초상화는 사진술의 영향으로 세밀한 표현과 채색을 적극적으로 담아냈다. 새로운 미술에 목마른 일부 화가는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러 해외로 떠나기도 하였다.



채용신 蔡龍臣
실명씨(失名氏)초상, 1919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채용신



노수현 盧壽鉉
산수도(山水圖), 1942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노수현



이상범 李象範
보덕굴(普德窟), 1940년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상범

수용(受容), 사실을 재현하다

김경승, 김기창, 김인승, 도상봉, 박래현, 박상옥, 박수근, 박영선, 배정례, 변영원, 손은성, 오지호, 윤재우, 이마동, 이응노, 이종무, 이종우, 이종섭, 임직순, 장옥진, 조병덕, 천경자, 최덕휴, 최쌍중, 최영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문화통치를 목적으로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해방 후 정부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열어 국가가 주도하는 관전(官展)의 역사를 이어갔다. 당대 미술의 중심점이었던 관전에 일찍이 해외로 떠났던 유학생들이 돌아와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관전은 신진작가의 등용문이자, 미술계의 주류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인증수단이었다. 초기 작품들은 천편일률적인 소재와 양식으로 아카데미즘 일색이었으나, 점차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과 한국적 서정성을 강조한 작품들로 변화했다. 관전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특히 박수근, 이종섭, 장옥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일부는 관전에 참여했으나, 결국은 독자적인 미술 표현을 체득하고 자신만의 예술 영역을 구축했다.



이중섭 李仲燮
꽃과 노란 어린이, 1955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중섭



장옥진 張旭鎭
나무가 있는 풍경, 1965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장옥진미술문화재단



박수근 朴壽根
복숭아, 1957년경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박수근연구소

혁신(革新), 현대성에 도전하다

권옥연, 권진규, 김환기, 남 관, 류경채, 문학진, 변영원, 변중하, 송영수, 유강열, 이성자, 이응노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과 분단, 4.19혁명 등 굴곡진 시기를 겪으며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다. 작가들도 기존 국가 주도 전람회의 고정된 틀에서 나와 탈(脫) 국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미술운동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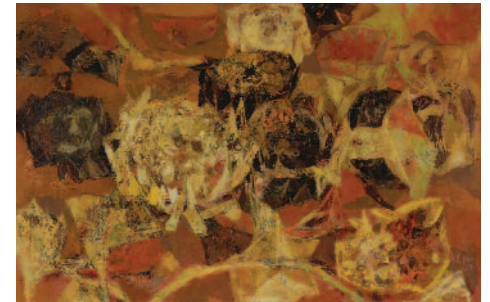
당시 열정적인 젊은 화가들은 권위에 도전하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전위적인 미술 흐름인 유럽의 앵포르멜(Informel)을 받아들였다. 양식적으로는 서구 미술의 모방이지만, 전위적인 미술의 흐름이었다. 미술은 이제 고전적인 아름다움만을 재현하지 않고, 시대정신을 구현하며 기존 회화의 고유 영역을 넘어섰다. 대상의 형태를 없애고 색채와 질감 등이 중시되는 추상미술의 시대가 열렸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현대미술이 등장했다.



김환기 金煥基
월광(月光), 1959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재)한기재단·한기미술관



송영수 宋榮洙
순교자(殉敎者), 1967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송영수



류경채 柳景塚
해바라기, 1959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류경채